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방행편집인 공영인
주간 이서우
편집장 김종석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45호 〈주간〉 1994년 5월 9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지역 주민도 함께, '경희인의 밤'

개교 45주년 기념행사 공연, 학술, 의료봉사 등 다양

개교 45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기서 문리대 사학과 교수)는 의료봉사와 화합잔치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교 45주년 기념행사를 기획, 발표하였다.

개교 45주년 기념행사는 크게 학술부, 예체능부, 행사부, 의료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학생처와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화합잔치인 '경희인의 밤'은 교직원, 학생, 동문과 지역주민까지 모두 함께하는 행사로 노천극장에서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1부에서 음악, 체육, 부용발표가 있게 되고 2부 기념식에서는 45년의 역사 멀티비전 상영과 경희의 20세기 전망발표가 간단하게 있고 동문연예인의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봉사가 올해 새롭게 계획되었다. 이 봉사는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은 오는 20일과 21일에 의료원 뒷뜰에서, 수원은 26, 27일 양일간 진료할 예정이다. 또 난치병에 걸린 환자 두 명을 수술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또 이 의료봉사는 해외에까지 확산하여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변에 의료봉사단 26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외에 개교기념행사의 세부계획을 알아보면 우선 학술부에서는 9건의 국제학술세미나와 3건의 국내학술 세미나 등 다채로운 학술세미나가 학기중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또 연구처에서는 45주년 기념으로 23가지의 학술지가 발간된다.

예체능부의 행사로는 각종 음악제와 전시회, 체육행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 29일 진행된 '박영숙, 김화례, 김말애 작품전'을 비롯하여 수원캠퍼스 도예과 출신 현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개교 45주년 기념 도예전'과 서울캠퍼스 미교과에서 주최하는 '개교 45주년 미술 초대전'등이 있다.

한편 교내에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념식 외에도 수원캠퍼스의 불레경연대회, 서울캠퍼스의 영어경시대회(19일)와 제경회 외국인 학생 장기대회(18일) 등의 경연대회도 개최된다.

수원 체육부 메달 푸짐

태권도·배드민턴·복싱·탁구부 쾌거

수원캠퍼스 체육부는 태권도, 배드민턴, 복싱 3개부문에서 대통령훈장을 수여받았다.

각 부문별 수상자를 살펴보면 ▲태권도 거장상에 정병숙(태권·1), 박은선(태권·1), 이승민(태권·3), 임영호(태권·4) 백마상에 박경숙(태권·2) ▲배드민턴의 경우 박수연(체육·3) ▲복싱에 박완순(체육·1)군이다.

한편, 탁구부는 인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시·도 대항 탁구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4월 30일 결승전을 가진 제 5회 대한 아마추어 복싱연맹회장배전국대회에서 우리학교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 박완순(체육·1), 박상민(체육·2), 배경석(체육·2)군이 금메달을, 고영호(체육·2), 김명종(체육·2), 신동길(체육·4)군이 은메달, 김현철(체육·1), 김효준(체육·1), 양승표(체육·1)군이 동메달을 각각 획득하였다.

연구비, 선수금제로 일괄 중앙관리

연구수행중 행정업무 연구처서 처리

우리학교 연구처는 모든 연구지원비에 대해 중앙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서울 지난 1월, 수원 5월부터)

중앙관리제도란 연구수행과정 중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분을 연구처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교수들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교육부는 중앙관리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 연구비의 일정비율(자연계 10%, 인문계 5%)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있을 대학평가의 평가 항목에도 연구비 중앙관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연구비 전체를 중앙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 ▲특정 연구소 및 군데를 지정하여 분할 관리하는 방법 ▲선수금제도-일정액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으며 우리 학교는 이 중 선수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수금제도는 앞의 두 방법에 비해 간단한 기자재구입의 경우나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하는 사안을 행정부서의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중앙 관리를 실시함에 따라 연구비의 3~5%정도를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하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수원의 경우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징수하게 된다.

수원캠퍼스 연구처 전현 주임은 "교수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연구처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연구처의 직원 충원이나 기자재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절행사 참가 본교 학생 구속

"노·학 연대 탄압 신호"우려

지난 5월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행사에 참가하려던 우리학교 학생 진의성(신방·2)군이 쇠파이프 소지를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경찰측은 진군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전경이 두명 있다고 말하고 진군이 사수대에 끼여 있는 사진을 제시했는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정부가 허가한 합법 집회에서 단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구속하는 것은 '노동자·학생 연대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들고 있던 쇠파이프는 그 전날 고려대에서 있었던 노동절 전야제 행사 중 선동대 공연에 사용하던 것으로 방어용이고 전경과 대치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상당했다는 전경의 진술은 허위진술이며 전경이 휘두른 폭력에 크게 다친 쪽은 오히려 학생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진군과 같이 행사에 참가했던 우리학교 학생 7명은 '구속학우 진의성 석방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석방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일 우리학교 학생 40여명과 함께 진군이 구속되어 있는 성북경찰서를 향의 방문했고 앞으로 서명, 모금, 하루주점 등 사태를 알리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외대 학생회장 보궐선거

외국어대는 오는 16일과 17일에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직년 10월 외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최윤희(불문·4)양이 지난 3월 20일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총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이상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이번 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선거일정은 4일부터 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운동, 16일부터 17일까지 선거, 17일 오후 6시30분부터 한누리 소극장에서 개표를 실시한다.

후보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1백명이상의 후보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입후보 등록원, 공약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MDOP 합동연주

'경희개교 45주년 기념 한·일 합동연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 크라운관에서 개최된다.

이 합동연주회는 서울캠퍼스 의과대학 교향악단 MDOP와 일본 야오시 교향악단이 우리학교 개교 45주년을 맞아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그리그의 피아노 콘서트,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 선보이는 이번 연주회는 강신태, 미하원 명이랑의 지휘로 진행된다.

교사탑

"스포츠 정신과 인간의 情"

▼스포츠에서의 승리는 선수들에게 있어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개구리의 힘찬 도약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감독도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이 승리감의 의식으로 무장하고 개구리의 도약을 시행하길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 스포츠에는 개구리의 훌륭한 도약보다도 인간적인 면이 더욱 우선시 될 때가 있다. 그렇다면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과 인간적 감정을 경기에서 배제하지 못한 사람중 누가 진정한 스포츠인에 가까울까?

▼최근 열렸던 한국아마복싱선수권의 마지막 경기, K대 O선수와 H대의 마지막 자존심인 L선수가 헤비급결승전에서 맞붙었다. 일전 스파링에서 열세를 보인적이 있었다는 O선수는 불굴의 투지로 싸워 3라운드 중반까지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 주었다. 개구리의 훌륭한 도약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K대 복싱부의 Y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H대의 성적부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작년 12월에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고 반신불수로 누워 있는 타이틀 H대 U감독과, 사정함 없이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는 H대 선수들의 모습이 Y감독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Y감독은 3회 종료 20초를 남겨 놓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사랑하는 자기선수의 개구리 도약을 받쳐주느냐, H대를 위해서 승리를 양보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됐던 것이다.

▼Y감독의 이런 갈등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중요시해 정정당당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 승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단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승부의 향방을 고민해야 했던 감독의 나약한 모습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선수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H대 U감독의 불행한 현실과 따한 처지를 위해 가능성 있는 우승의 깃발 하나를 포기 해버린 고육지책의 행동, 이른바 인간적인 정(情)에 대한 것이다.

'적자생존'의 경쟁원리속에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던져진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모상용 記者〉

수원 봄농활 이천군에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농활준비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이천군에서 봄농촌 활동을 실시한다.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산하 용성지구총학생회의 연합으로 실시하게 되는 이번 농활은 수원캠퍼스 6개 단대 및 동아리연합회 소속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제요리, 신월리 등 이천군 15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갖는다.

한편 농활 준비단은 본활동 후 농민·학생 간담회와 농활 주제 평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社告

詩 문예 현상 공모

오늘마감,형식제한없이 3편이상

우리신문사는 개교 45주년과 창간 39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詩 창작 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5회 대학주보 詩 문예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기간 : 1994년 5월 9일까지
▲응모부문 : 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원고제출처 : 본사 편집실 및 수원캠퍼스 편집실
▲심사 : 교내 전공교수 2인과 본사가 의뢰한 시인과 문학평론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본사 주간교수로 하여 총 6인으로 구성, 심사한다.
▲입상작 발표 : 5월 16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입상작 처리
1) 당선작 1편 : 상패 및 9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액지급
2) 가작 2편 : 각 상패 및 2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3) 입선작 3편 : 각각 소정의 상금 지급

—대학주보사—

21세기를 향한 경희 개교 45주년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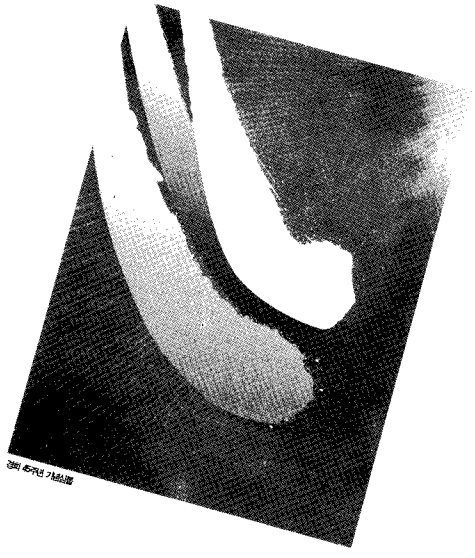
경희 45주년

화합 한마당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찍이 대학의 세계화를 선도해 온
우리대학교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도약의 힘찬
미래는 경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경희 45주년 화합 한마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약속을 일구어 내는
자리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와
화합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공영일



경희 45주년 화합잔치 일정표

본행사 (20일 18:00~21:00)	제1부	태권도시범(20분) 응원단시범(서울·수원)20분 음대 관악연주(40분) 체대 무용공연(20분)
	제2부	경희역사 멀티비전 상영(20분) 21세기를 향한 경희인의 상 기념식(30분)
	제3부	동문연예인 초청공연 (김광석, 권인하, 신형원, 윤상, 장필순외 다수)

체육행사	20일	농 구	일본입명관대학 초청시합	10:30~11:30
		여자축구	본교 대 타교팀	14:00~15:00
		남자축구	OB 대 YB	15:10~16:30
	21일	농 구	일본입명관대학 초청시합	10:30~11:30